



오늘의 말씀 - 월 (출 4:10-17)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본문 이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적용

위대한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업적

들은, 자신이 그 일에 최고라고 생각하며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매끄럽지 못하고, 더듬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진지함과 깊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지함과 깊이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보다 언제나 설득력이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보다, 말 못하는 동생 모세를 앞세우신 이유입니다.

묵상의 삶이 은혜인 것은, 묵상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말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글로 써나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감이라 하지요. 하나님은 이 영감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진지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말 못하고, 지식도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생각과 말이 진지함과 깊이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묵상의 삶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
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
서.

(내일 말씀: 출 4:18-23)